

KEPCO E&C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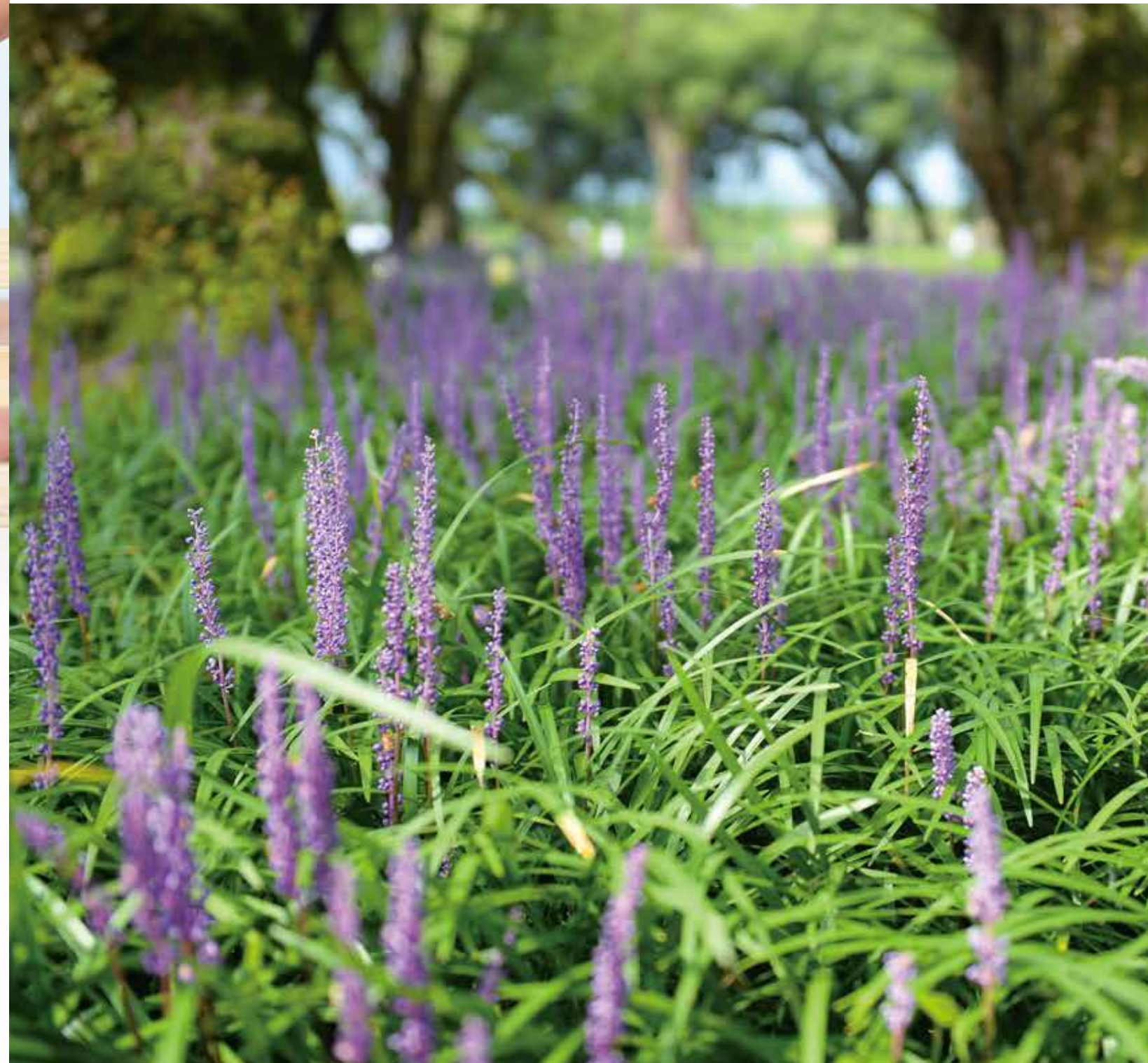
2020 09+10

힘내라! 대한민국!
되살리자! 지역경제!

지역경제 되살리기에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어려운 지역경기를 되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 기부금 기탁,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사회 방역,
자발적 헌혈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020 09+10

KEPCO E&C Family



통권 460호 2020년 9,10월호(격월간)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rainbow@kepco-enc.com

인 쇄 동아인쇄(주)(054-433-4454)



「끝과 시작」의 일부, 비스와마 셉보르스카

두 번은 없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04 창립45주년 축하

빛과 동력의 역군이 되어

06 명사칼럼

내 인생 세번의 축복

08 Brife News

신임 경영관리본부장, 에너지신사업본부장 취임
청렴도 최우수등급 달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공공기관 합동 청렴시민감사관회의 개최
KEPIC MN/SN 인증갱신 심사 수검
벨기에 트랙터벨사와 워크숍 개최
상임감사 청렴·반부패 신고 장려 캠페인 실시
2020년도 직무입문교육 실시

10 특별인터뷰

김천의료원 김미경 원장 ‘그 날 물밀듯 밀려왔다’

12 KEPCO E&C Event

2020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14 이달의 한기인

미래전략연구소 경영IT팀 장명자 부장



16 팀소개

원자력본부 내환경검증팀

18 가족 탐방

김웅배 과장 & 송하나 대리

20 나의 취미

농장을 가꾸며 - 최장권 부장

22 도시 탐방

부산기행 : 산복도로 마을

24 Shall We Meet?

사육관리팀 박세원

26 지상전시회

구멍가게 펜화 - 이미경 화가

28 한 번 가 보고 싶은 곳

직지사역 기차카페

30 술익는 마을 : 우리 술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향토민속주 - 금정산성막걸리



32 Project of KEPCO E&C

BANDI 60

34 포토에세이

현판,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미학코드

36 퇴직을 앞두고

회사와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 김인식 처장

38 직원 참여 마당

한국에도 있다. 라벤더팜!

39 이달의 한컷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40 결연마을

경영관리본부 결연마을 황항리

42 협력회사 소개

(주)아이스기술

44 Culture

에세이 『일꾼의 말』 외

46 사보기획이야기

독자와의 수다





1975 공릉동

공릉동 한국원자력연구소 연수원



1981 여의도

여의도 한전 남서울 사옥 + 별관(쌍마빌딩/두레빌딩)



1986 삼성동

삼성동 한국중공업 빌딩 + 삼성동 별관(대치빌딩/역삼빌딩)



1995 용인

용인사옥 건립 +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대전사옥 + 분당별관



2015 김천

빛과 동력의 역군이 되어

| 권이영 (시인/한국전력기술 상무 역임)

한국전력기술 45년의 역사는 빛과 동력의 역사이리라
국민들의 일상을 밝히고 산업활동을 위한 동력 생산에
큰 기둥의 역할을 하여 온 한국전력기술이여!

한국전력기술의 역군들이여!

공능동 좋은 터에서 태어난 지 어언 45년

여의도로, 삼성동으로, 구성면으로

그리고 이제는 물 좋고 햇볕 좋은 김천 드림 밸리에
랜드마크로 우뚝 선 우리 한국전력기술

당인리, 영광, 월성, 울진, 제주 등 국내는 물론

미국, 벨지움, 캐나다, 프랑스, 아랍에미레이트 등

해외로 뻗어나간 한국전력기술, 자랑스러운 이름이여!

45세 중년의 관록과 패기가 힘을 뿜는

한국전력기술이여!

시월의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결친다

풍성한 수확이 우리를 기다린다

한국전력기술 2,300여 역군들이여

우리도 이처럼 풍성한 수확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며

세계 방방곡곡으로 뻗어나가자

아시아로 가자, 아메리카로 가자

유럽으로 가자, 아프리카로 가자

오대양육대주를 향해 날개쳐 솟아오르자

힘차게 뻗어나가자! 한국전력기술, 불사조여!

영원한 빛과 동력의 자랑스러운 역군들이여!

내 인생 세 번의 축복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신 일이고, 두 번째는 10년간 다니던 대우그룹이 문을 닫은 일이며, 세 번째는 50대 초반 위암 선고를 받은 일이다. 세 경우 모두 살면서 몇 번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다. 언젠가는 부모와 이별해야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였고, 회사도 영속하는 건 아니지만 대우가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며, 요즘 같이 오래 사는 시대에 50대 초반의 암 선고는 가혹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위기였다.

엄마의 부재는 나를 주변으로 내몰았다. 가정의 중심은 엄마다. 더욱이 어린 아이가 기뻐 언덕은 엄마뿐이다. 모든 건 엄마에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대로, 나답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치를 심하게 봤다. 손님은 주인의 눈치를 본다. 주인으로 살려면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존재가 있을 때 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주인이 아닌 객이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맞춰주려고 그랬다. 맞춰줘야 혼나지 않으니까.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사회에 나와 보니 눈치가 최고의 경쟁력이었다. 학교이건 회사이건 공직이건 주인은 따로 있었다. 객식구 역할을 잘하면 됐다. 나는 그 역할에 충실했다. 잘 읽고 잘 들었다. 늘 남에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했다. 좋은 평가에 갈급했다. 나 같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인사고과를 잘 받는다. 나는 마침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생각을 읽어 글을 쓰는 연설비서관이 됐다. 눈치는 엄마가 내게 남겨준 고마운 선물이었다.



강 원 국

-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

1990년 초 입사한 대우그룹이 1999년 말 문을 닫았다. 1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 그리고 2000년 8월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대우에서의 10년이 없었다면, 김우중 회장의 연설문을 쓰지 않았더라면, 아니 대우가 부도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출발 연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회담에 임하겠습니다.” ‘나도 저런 글을 쓸 수 있다,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대통령 경제 연설을 쓰는 행정관으로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고. 대우가 그리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대우에 다니고 있을 것이다. 아니 이미 퇴직했을 것이다. 대우는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면서 내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

청와대에 들어가 그동안 갖고 담은 눈치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다. 글쓰기뿐 아니라 조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늘이기 아니면 줄이기다. 상사의 말이나 자료에서 핵심을 찾아내 요약 정리하거나, 상사의 짧은 지시에서 그 의미와 배경, 맥락, 취지, 목적을 파악해 빈칸을 채우는 일이 전부다. 줄이기와 늘이기 모두 눈치가 빨라야 한다. 다시 말해 읽기, 듣기를 잘해야 한다.

암 선고는 내 삶의 전환점이 됐다. 하마터면 읽기, 듣기만 하다 죽을 뻔 했다. 이제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며 산다. 말과 글로 나를 보여주고, 남에게 도움도 준다. 읽고 듣는다는 건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이다. 생산자가 아니고 소비자에 불과하다. 내 것을 만들어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걸 소유할 뿐이다. 내가 주체가 아니다. 남의 말을 듣고 시키는 일을 하는 객체에 불과하다.

누구나 말하고 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여러 이유로 이런 욕구를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조직은 구성원 개개인이 이를 드러낼 때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다. 각자가 가진 걸 보여주지 않으면 조직은 그것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그로 인해 조직이 성장할 수 없다. 구성원은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고, 조직이나 상사는 그것이 드러나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우선, 개개인은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그 하나는 메모다, 읽고 들은 걸 메모했다가 자신의 말하기, 쓰기에 활용해야 한다. 메모는 읽기, 듣기와 말하기, 쓰기를 연결하는 다리다. 메모 없이 말하기, 쓰기를 잘할 수 없다. 또한 메모할 때 읽기, 듣기도 재미있고 의미 있어 진다.

다른 하나는 말과 글이 교차하는 일상을 사는 것이다. 말하기 전에 글로 써보고, 글을 쓰기 전에 말해보는 것이다. 말은 글로, 글은 말로 준비해보라. 그러면 말 같은 글을 쓰고 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음성 지원되고, 말을 받아 적으면 그것이 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자. 말과 글에서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자. 우리 모두는 말과 글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표현욕구와 인정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자아실현이란 것도 말과 글을 통해 가능하다. 존재의미와 존재가치도 말과 글 안에 있는 것이다.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말과 글의 수준을 높여보자.

상사나 조직도 할 일이 있다. 잘 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말하고 쓸 수 있다. 잘 들어준다는 건 다섯 가지를 해주는 것이다. 첫째, 말할 용기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둘째, 그 말을 다듬고 보완해준다. 셋째, 말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넷째, 잘 됐을 때 공을 나눠준다. 다섯째, 잘 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저준다. 나는 이런 상사를 만났을 때 마음껏 말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듯 말했다. 그리고 그때 힘든 줄 모르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했다. 성과도 가장 좋았다. 말과 글이 위아래로 활발하게 순환하는 조직, 소통이 잘 되는 조직에서는 개인이 행복하다. 조직도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나는 지금 조직을 떠나 마음껏 말하고 글 쓰며 산다. 내게 온 세 번의 위기는 모두 기회가 됐다.

고맙고 감사하다. **E&C**

KEPCO E&C News

신임 경영관리본부장, 에너지신사업본부장 취임

8월 14일 김천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경영관리본부장에 함기환 前)한국전력 해외사업본부장이, 에너지신사업본부장에 김동규 한국전력기술 前)강릉안인화력 책임자가 선임되었다. 함기환 본부장은 당일 본사에서 진행된 이취임식에서 “글로벌 경쟁환경에 탄력적 대응,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개발,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동규 본부장은 “지난 45년간 일구고 쌓아온 저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신성장 사업을 확대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밝혔다.



함기환 경영관리본부장

- 학력
 - 동국대 경제학
 -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주요 경력
 -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장
 -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본부장



김동규 에너지신사업본부장

- 학력
 - 동아대 토목공학
 - 동아대 토목공학 석사
- 주요 경력
 - 한국전력기술 건설사업그룹장
 - 한국전력기술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설계사업책임자

상임감사 청렴·반부패 신고 장려 캠페인 실시

감사실은 8월 7일 임직원의 반부패 신고 정신을 독려하고 청렴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청렴 세상 내 손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부패비리,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등의 신고에 대한 절차와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을 기재한 청렴·반부패 신고 매뉴얼 및 상임감사의 청렴메시지를 담은 마스크 고리 목걸이를 배포하며 반부패 신고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 제고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임감사 청렴·반부패 신고 장려 캠페인 실시

공공기관 합동 청렴시민감사관회의 개최

7월 14일 김천 본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관리공사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반부패 청렴 생태계를 유지시켜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공공기관 합동 청렴시민감사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각 기관별 시민감사관들은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토의와 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사적 반부패·청렴활동을 지속하고 전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노력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공공기관 합동 청렴시민감사관회의 개최



KEPIC MN/SN 인증갱신 심사 수검

KEPIC MN/SN 인증갱신 심사 수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대한전기협회(KEPIC)로부터 KEPIC MN/SN 인증갱신심사를 받았다. 이번 갱신 심사는 KEPIC Code 적용 원자력 설계기술업무 수행 능력을 점검받기 위한 심사로, 1999년 인증서 최초 취득 이후 제7차 자격인증갱신 심사다. 회사는 이번 심사를 통해 KEPIC MN/SN 인증 유지를 위해 적합한 품질보증 체계와 절차를 잘 갖추고 있으며, 원자력 사업의 KEPIC 적용 설계기술업무 수행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인정을 다시 한번 받았다.



벨기에 트렉터벨사와 워크숍 개최

벨기에 트렉터벨사와 워크숍 개최

7월 23일과 8월 5일에 벨기에 트렉터벨(Tractebel)사와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원자력 및 신재생분야 2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LTEA, 해외 가동원전, 원전해체 및 폐로, 해상풍력발전 및 수소 에너지 등 원자력 및 에너지사업분야 등에서 각사의 역할 및 기술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회사는 이번 기술 협력 워크숍을 통해 양사간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및 기술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청렴도 최우수등급 달성 워크숍 개최

8월 6일 김천 본사에서 ‘2020년 청렴도 최우수등급 달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외부고객들의 불편과 건의사항, 청렴정책 제언 등 청렴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60여 명의 ‘청렴메신저’ 담당자와 윤리경영 지킴이들이 참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모아 추진 중인 다양한 활동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청렴도 최우수등급 달성 워크숍 개최

2020년도 직무입문교육 실시

2020년도 직무입문교육을 8월 18일 본사 1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9년 12월 입사한 신입사원 등 총 75명을 대상으로 8월26일까지 총 7일 동안 시행된다. 교육은 원자력, 원자로계통설계, 플랜트, 공통분야 등 4개분야의 38개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담당교과 강사들이 교재개발부터 강의에 이르기까지 실제 업무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도 직무입문교육 실시

김천의료원 김미경 원장

그 날 물밀듯 밀려왔다

2월 22일 김천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증 전담병원 지정과 함께 의료원 완전 소개명령서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다. 빠른 시일 내 296 병상을 비우고 270여 명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281 병상에 이동형 음압기 긴급 설치, 코로나19 확진자 269명을 이송, 입원하였다(주로 봉화 푸른 요양원 등의 타 지역 환자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혼란과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병원은 곧 전쟁터로 바뀌고 연이어 끝없는 사투가 이어졌다.

그런 기록물이 “**코로나 19 사투의 현장에서 : 집단 지성의 승리, 김천의료원 70일간의 기록**”으로 최근 출간되었다. 인터뷰는 8월4일 오후 3시 김천의료원 원장실에서 이루어졌다.



Q : 코로나 사투 기록을 남겨야 하는 필연성이 있었나요?

A : 눈물과 목숨이 오고가는 현장도 결국 기억으로 바뀝니다. 과거 기억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으면 현재 편견으로 남고 미래에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기 힘듭니다.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출간을 결정했습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코로나 진료 상황을 부탁드립니다.

A : 단 3일 만에 270명 입원환자를 분류하여 자택, 타 병원으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에 걸려 죽어도 좋으니 안가겠다고 때를 쓰는 환자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병원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비참함과 착잡함, 새로운 다짐 같은 게 뒤섞여 무척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잊히지 않는 장면입니다.



Q : 한국이 코로나 확산세를 잡은 비결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A : 뚫렸나 안 뚫렸나 차이는 인권보호 측면보다 전체 사회가 감염위험을 확실히 알고 함께 수칙을 지켜주는가로 판가를 났습니다. 정신이 느슨했던 나라들, 똑바로 정신을 차렸던 나라들의 의식수준, 이걸 집단지성이라 봅니다.

Q : 질문을 바꾸어, 혁신도시의 의료시설 부족과 지역진료에 대한 회의,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아플 때 멀리 구미나 대구로 가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 ‘아프면 서울 간다’라고 말하지만 완벽한 병원은 없습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둘다 마셔 본 자, 달리 경험해 보지 않는 자의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모름과 앎의 차이가 작음합니다. 대도시 대형병원에 없는 의료시설, 서비스, 의료진이 김천 의료원에도 있다면 믿습니까? 문제는 경증을 따져보는 객관적 정보, 알려는 자세 같은 게 부족해 보입니다. 김천의료원의 장비와 시설, 진료 수준은 사실 높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우리 병원에 오는데 15분 남짓입니다. 그런데 심리적 거리로 자꾸 멀다고만 생각합니다. 대형병원의 힘든 예약, 긴 대기시간, 짧은 진료상담과 견주어 우리병원에서는 충분한 진료와 상담을 받을 자원이 넉넉히 있습니다. 일단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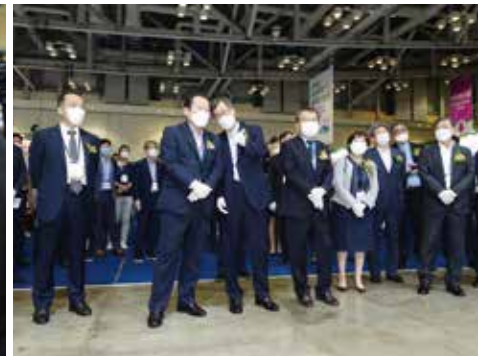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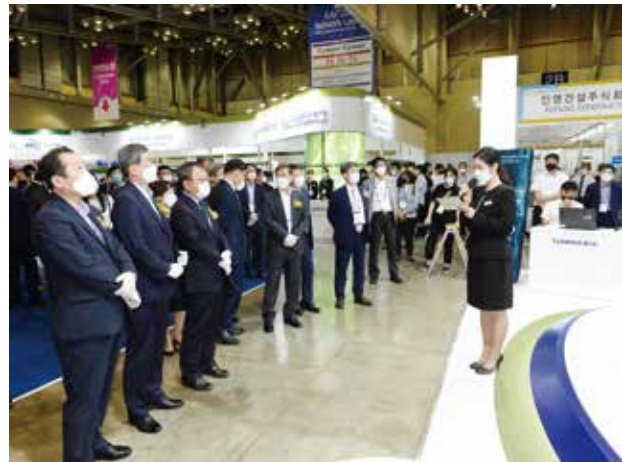
김미경 원장은 답변할 때 아랫입술을 지긋이 살짝 물면서 말하는 모습이 무척 강단 있어 보였다. 꺼내는 말이 의료수가체계, 병실회전과 공실율,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보건 지역개념, 진료타당성조사 등의 보건용어가 즐비했다. 다른 각도에서 비저너리 최고경영자(Visionary CEO)을 보는 듯한 인상도 받았다. 의료중심축이 고령화 케어로 옮겨가고 있기에 젊은 층이 두터운 혁신도시와의 밸런스 문제를 고민 중이다. 또 혁신도시 주민을 위한 병원시설과 장비, 의료진을 파악하는 자체 병원 투어 계획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레벨D방호복과 N95마스크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방호복을 착용하면 식사와 화장실 용변이 곤란하고 5분이 지나면 땀이 차고 고글이 습기로 가려져 상처를 봉합하는 실도 주사바늘도 잘 안보인다. 마스크는 이산화탄소가 재흡입되어 혈중농도가 올라가 뇌혈관 확장으로 인한 두통과 졸림 현상이 발생한다. 의료진이 이 상태에서 하루 10~14시간 근무하였다. 얼굴이 험고 피부가 벗겨지고 수면 중에도 방호복과 마스크를 찬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E&C**

김미경 원장님 Tip

명의로는 신문과 TV 같은 방송 매체, 인터넷, 입소문으로 찾지 마라. 해당 전문의가 추천하는 분이 가장 신뢰도가 높고 명의로의 실력 또한 좋다.

2020 부산 국제원자력산업전



2020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이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부산 BEXCO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분야 전시회로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며 12개국 120개 기관들이 참여했으며 약 1,000명이 전시관을 관람했다. 우리회사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여 원전 설계기술의 우수성과 개발중 신기술을 소개하였다.



2014년도부터 부산 BEXCO에서 국제원자력산업전이 격년 개최되고 있다. 원자력의 대내외 인식 제고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기술개발 정보의 집약과 해외 협력 및 수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 각 업체의 다양한 신기술 전시를 통하여 한국 원자력 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전시 분야로는 원전건설, 원자력기자재, 원전해체, 원전정비, 원전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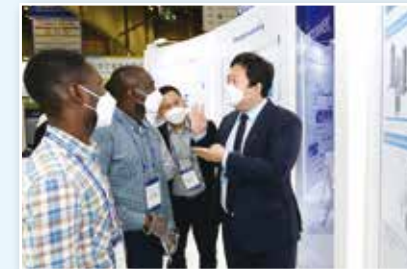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해외 원전해체기술 및 원자력 R&D 성과 같은 특별관을 운영했다. 그 취지는 기업 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고 각 기업이 보유한 원전해체 기술 및 장비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전시회 첫날은 개막식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개막행사에는 내빈소개, 테이프커팅 및 기념촬영이 있었다. 각 기업별 전시 부스를 VIP 인사분들이 순람하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회사는 이번 전시에서 원자력 본부의 VR/AR과 원전해체 관련기술, 원자로설계개발단의 CASK와 SMR을 소개하였다. 특히 이번에 새로 선보인 MCR 모형 제어반 리모트 조작 관련 VR을 직접 시연했다. 원전 폐기물 저장용기인 CASK 모형을 제작하여 홍보영상도 추가 상영했다. 우리 전시관을 방문한 많은 관계자들이 신기술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호평하였다.

부대행사는 전력 기자재 구매상담회와 동시 개최하였다. 전력 공기업과 기자



재 중소기업의 구매상담은 산업계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자재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다. 우리회사를 포함한 총 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우리는 총 6개의 기자재 중소기업과 구매상담을 진행했다. 구매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 많은 기자재 중소기업들이 전력 공기업과 함께 사업을 확장하고 서로 상생하는 기회가 늘어날것이다.

전시회 마지막 날은 전력 공기업 취업설명회 및 취업상담회가 진행되어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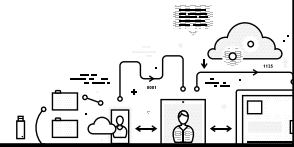
생 취업 지원을 위한 전력공기업 취업정보를 제공했다. 예상외로 많은 학생들이 전력 공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 기관 부스를 방문하여 그 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하였다. 회사 부스에도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여 CASK 및 SMR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



원자력 및 전력 유관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널리 알리고 원전 산업이 앞으로 더 부흥하길 기대한다. E&C



미래전략연구소 경영IT팀 장명자 부장



어떤 사람에게 이면의 이면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반전의
힘이 있다. 강한 듯 보이는 사람에게 얼핏
보이는 연약함, 조용하고 내성적 사람에게
숨겨진 이상한 열정, 빈둥거리며 게을러
보이는 사람이 어떤 일에 면도날 같은
집중도를 보일 때이다. 인터뷰가 조금
쑥스럽다는 장명자 부장을 만났다.
조신해 보이는 첫 인상이다.
하지만 ICT 업무 이야기가 나오자
좌고우면할 새도 없이 자신이 미처
이루 다 전할 수 없다는 답답함에 몸의
각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눈빛이 갈수록
또렷해졌다. 그래서 용궁 가서 구양진경
심결 듣는 형태가 되었다. “아침에
출근하면 팀원 얼굴을 한 번씩 쓰욱
바라다봅니다. 그러면 뭐든 다시
시작하는 힘이 생깁니다.”로
그녀의 말문이 열렸다.



현대 업무는 뉴런의 시냅스 신경계처럼 네트워크로 집약되어 빅 데이터와 연결된
여러 서버로 모듈화되어 포털에 통합되어 있다. 회사 정보와 업무는 포털을 들여
다보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직원들 요구사항도 각양각색이고, 쏟아지는 각종
문의로 메일은 넘쳐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도대체 무엇들 하고 있어.” 비
난의 폭포수가 쏟아진다. 그걸 헤쳐나가기도 만만치 않거니와 설상가상 프로그래
밍 작업도 대기 중이다. 또 새로운 시스템을 언제 준비하고 심의받고 발주 내어 구
축할 것인가?

그래도 포털을 매일 접하는 직원들의 전산
상 불편과 불만은 높은 편이다. “물과 산소
가 부족하면 야단이 나기 마련이고 정보전
산은 본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네입니다.
직원들 오해와 편견으로 마음고생도 하는
편인데 우리 업무를 직원들이 잘 모르는 탓
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대부분 외주주는 것 아니냐는
넘겨짚기 질문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 개
발하는 일도 적잖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제도 시행과 전산구현이 함께 묶이다
보니 매도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작은 프
로그램이라도 자료구조, 화면구성, 인터페
이스, 호환성 체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
히 팀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인데 새벽 2
시까지 밤새우는 일도 허다하고 코로나 사
태와도 무관하게 진행해야 했어요. 팀장이
라고 고생하는 팀원들 챙겨주는 것도 한계
가 있고.....” 갈수록 숙연한 느낌이 들었다.
속칭 “나는 밥값 하는가?” 스스로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다.

간혹 업무에 치이고 머리에 핏즈가 나갈 것
같을 때 “그만두고 싶다.” 남편에게 하소연
도 했다.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인지
천성이 그런 것인지 남군님은 대기업 전산
팀의 동일업종 종사자로 자녀 케어 및 학업
챙기기, 요리, 가사를 도맡아 하는 가정적
남자이다. 세상 게으른 남자는 이런 이야기
를 들으면 ‘옆집 아저씨 스토리’로 마이동풍
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내의 숨통을
터주려는 착한 남자임은 분명하다.



장 부장은 대구가 고향이지만 자란 곳은 울산. 넉넉치 않은 살림에 부모 권유로
간호장교를 지원했지만 시력에 그만 탈락, 대학진학을 꿈꾸며 고집하였다. 그
시절 딸에게는 어지간한 도전이 아니었다. 이런 엄마의 당찬 면을 그 딸이 또
물려받았다. 엄마는 딸을 연세대 전기전자 학부에 넣었지만, 어느 날 딸은 “나
의대 갈래”라며 학력고사를 다시 보고 제주대의대에 입학했다니 모전여전이다.

인생 순서도의 Yes, No 분기점에서 화살표 그릴 때 무얼 가장 중시하는지 물
었다. 장 부장이 꺼내든 카드는 ‘진인사대천명’이다. 소신껏 최선을 다하고 시
스템을 개선했다면 땀땀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 어쩌면 그게 인생의 알고리
즘이자 디버깅 과정 아닐까. 장 부장에게 느낀 반전은 ‘참 야물딱진 울산 큰
애기’로 정의해 본다.

* 인터뷰 도중 알게 된 사실 :

회사 T/C 관리체계는 상업용 프로그램도 구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시스템으로
사업수지 분석, 인건비 산출, 급여와 연동되는 유일무이한 체계로 자랑할 만하
다. 보안과 관련한 자료 반출입 절차에서 다른 기관은 파일을 반출할 경우 파일
암호화 작업까지 부가하여 더 복잡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 **ES&C**



원자력본부 내환경검증팀

2014년 설립된 원전안전센터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성관련 기기의 검증 및 품질활동 강화를 통해 원전의 안전도를 높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내진(SQ), 내환경(EQ), CGID/EMC, 설계점검/PQE 4개 팀으로 나뉘어진 전문가 그룹으로 원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내환경검증팀은 안전관련기기가 발전소 운전기간 동안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입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검증 문서 검토 및 각 환경조건에 대한 기기검증 평가, 검증수명 및 기기의 수명연장 프로그램과 제한된 수명에 대한 교체주기 성립, 검증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상은 팀장

팀원들을 아주 알뜰 살뜰 챙기는 내환경 검증팀의 든직한 팀장을 맡고 있다. 한 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시간가는줄 모르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달변가이기도 하다.

팀장으로서 팀원들이 검토한 의견 한 줄에도 항상 신중을 기한다. 탁구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넘치며, 늘 유창한 영어 실력을 꿈꾸며 회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재승 대리

가정에서는 두 아들의 슈퍼맨 같은 아버지이고, 회사에서는 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업무를 깔끔하게 수행한다. 다양한 업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팀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 뛰어난 볼링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센터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조 대의원 직책도 특특히 수행하고 있다.



신지훈 대리

순둥(?)한 얼굴과 달리 오랜기간 수영으로 다져진 어깨와 팔뚝을 보유하고 있다. 연일 고된 업무에 지칠 법 하지만 딸만 보면 피로가 사르르 녹는다는 딸 바보이다.

다양한 기기의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케이블 검증을 능숙 능란하게 처리하는 프로페셔널한 엔지니어이다.



최승우 사원

터프한 외모지만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경상도 사나이. 출중한 축구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서 검토시 날카로운 눈매로 토씨 한 글자도 절대 그냥 넘기는일이 없이 꼼꼼함을 추구한다. 스타 강사 뺨치는(?) 강의 실력으로 팀원들을 종종 놀라게 한다.



정승우 사원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지 이제 7개월된 파릇파릇한 신입 이자 막내이다. 아직 업무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단계이며 항상 물음표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 업무를 새로 배우는 재미와 열정으로 하루 하루가 즐겁다.

새로 배우는 재미와 열정으로 하루 하루가 즐겁다. **E&C**





2020, 비긴 어게인

김웅배 과장 & 송하나 대리



응답하라, 2015

2015년은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해이다. 우리가 결혼한 해이자, 김천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한 해이기 때문이다. 남편과는 한 기수 선후배 사이로 만나, 2015년 여름에 결혼했다. 우리들은 나를 비밀연애라며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주말에 몰래 데이트를 했지만, 기차 플랫폼에서 고속터미널에서 우리의 알콩달콩한 장면을 본 직원분들도 더러 계셨다. 그 때는 왜 비밀연애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남편의 성실하고 듬직한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고, 김천이전으로 정신없을 시기 결혼했지만 사내부인 덕분에 이동네 저동네 신혼집 구경하러 다니지 않고, 간편하게(?) 회사 근처에 집을 마련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5주년 그리고 김천생활 5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남편은 바로 울산으로 내려갔다. 그 당시 KINGS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어서 주말에만 김천에 왔다. 결혼을 했는데도 평일에 혼자 지내니 자유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하고 조금은 심심하기도 했다.(지금 아이 엄마가 된 이 순간 그때의 심심함이 몹시 그리기도 하다^^) 주말부부로 1년 남짓 무렵 다인이(우리딸)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근처 병원이 없어 구미까지 병원을 다녀야만 했다. 아기를 가지니 밤에 먹고 싶은게 왜 그리도 많은지 족발을 사다 줄 신랑도 없고, 주변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파는 음식점도 없고..... 밤에 뭔가가 먹고 싶을 때는 먹방채널을 보면서 위안을 삼았다. 그래도 매주 주말이면

울산에서 김천을 오고가며 살뜰히 챙겨준 남편 덕분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우리 세식구는 드디어 한 지붕 아래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였다.

남편의 아부다비 현장파견

다인이가 막 돌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UAE바라카 현장파견이 결정되었다. 초보엄마였기에 혼자 남편없이 3개월 동안 아기를 잘 돌볼 수 있을까 걱정되고 홀로 먼 곳에서 고생할 남편을 생각하니 걱정을 많이 하였다. 다행히 친정부모님이 파견 기간동안 다인이를 함께 돌봐 주신다고 하셔서 3개월 동안 친정 부모님 댁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그렇게 오랜시간 함께 얘기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친구랑 놀기 바쁘고 일한다는



핑계로 주말에는 잠만 자고,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없이 육아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아기와 함께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은 좋은 추억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돌 지난 아기를 떼어놓고 출국 해야하는 상황이니, 평소에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투른 남편도 공항 출국장 앞에서는 슬픈 마음을 숨기기 힘들어 보였다. “다인이 내가 잘 보살필게, 건강히 잘다녀와”하고 쿨하게 보내줬지만 집에 오는길에 다인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매일 저녁 화상전화로 서로 안부를 묻고 딸아이 육아일기도 공유하면서 3개월이 지났고 뜨거운 여름에 떠났던 남편이 가을 무렵에 돌아왔다. 화상전화로 얼굴을 봐서 그런지 딸아이는 남편을 낯설어하지 않고, 공항에서부터 아빠 껍딱지가 되어서 귀국한 날 남편은 피곤함도 잊은 채 온종일 다인이랑 함께 놀았다. 파견기간 동안 더운나라에서 가족을 위해 고생한 남편이 무사히 귀국해서 기뻛고, 아빠가 없는 동안에도 무탈히 자라준 다인이도 정말 고맙다.

매일 쓰는 육아일기

올해로 우리 딸이 네살이 되었다. 돌 지나면 금방 큰다더니, 하루하루 크는게 아쉬운 요즘이다. 깨어있을 때는 정말 예쁘고, 잘 때는 더 예쁘다는 말처럼 자는 다인의 얼굴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날아가는 느낌이다. 아무리 피곤해도 내 하루는 육아일기를 적는 것으로 끝난다. 매일 찍은 사진과 함께 그 날의 에피소드 몇 줄 적는 간단한 육아일기지만 일기를 쓰면서 부족한 엄마가 아닌지 반성도 하고, 아이를 더 사랑하는 방법도 생각한다. “다인아 엄마가 왜 좋아?” “좋아서 그래” 네살 우리딸이 항상 하는 대답이다. 이유가 없이 그냥 좋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고맙다. 이유 없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다인이의 마음이 고맙고, 내가 이런 예쁜 아가의 엄마임에 감사한다. 요즘에는 미운 네살 이라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다시 없을 우리 다인이의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

2020, 비긴 어게인

한 기수 선후배 사이로 만나서 우리는 이제 전투육아를 함께하는 동지가 되었다. 예전에 연애했 때처럼 가슴에 피어나는 뜨거운 사랑은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기질적으로 나와는 달라서 외부활동을 별로 안 좋아 하지만 다인과 나를 위해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함께 가주는 남편이 참 고맙다. 2020년은 우리부부에게 특별한 해이다. 결혼 5주년인 동시에 최근에 우리 모두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이다. 2020년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이 삶의 활력으로 되살아 나기를 기대해 본다.

오늘도 수고한 우리, 꽃길만 걸기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다. 마스크 쓰고 온 종일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있는 다인이, 우리 세식구를 위해 열일하는 남편 그리고 1호기(남편)와 2호기(다인)이 챙기기에 정신없는 나. 우리 모두 수고 많았어. 내일을 위해 오늘을 달리는 우리가족! 앞으로도 예쁜 꽃길만 걸자! **E&C**





농장을 가꾸며 - 소담산방

내 어릴 적, 70년대 동네 어귀에서 놀고 있는
동네 친구들을 뒤로하고 고사리 손이라도 거들어야하기에
부모님 따라 논으로 일하러 가는 것이 아주 싫었던 옛 된 기억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몇 십 년 동안 도시에서 농사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회사 지방이전이 결정되었고 6년여 전 김천으로 내려왔다. 그 후 혁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조그만 과수원 한 필지를 구입하였는데,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소유의 땅을 한번 가져보자는 좀 즉흥적인 생각으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섰다. 농지 소재지는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400평이 조금 넘는 밭인데 반백년 된 자두나무와 복숭아 등 50여 그루의 과수나무가 심겨져 있고, 밭 뒤와 좌우가 산줄기로 감싸여 아늑함을 주는 곳이라 마음이 동했던 모양이다.

‘太初에 行動이 있었다’ 독일 시인 괴테가 한 말인데 괴테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겠으나 이 구절을 화두로 삼아 글귀를 밭의 한 곳에 직접 써서 걸어놓고 농장을 가꾸기 시작했다.

김천 농협조합에 가입하고, 주말에 수도권으로 올라갈 일이 없기에 휴일만 되면 톱 하나 들고 밭의 경계에 있는 정글같이 우거진 나무들을 자르며 농지를 내 맘에 들도록 만들어 나갔다. 허나 그 일련의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농근과 운동근육은 다르기에 마라톤으로 단련된 신체는 한계를 보이며 얼마 후 결국 허리 디스크라는 훈장을 달았다. 땅이라는 게 사람손이 가면 달

라진다. 그것도 보기 좋은 모습으로. 경험이 전부 했던 과수 농사일은 월곡리 이장을 10년간 하신 분으로부터 그때그때 사안별로 유선으로 또는 찾아가서 전수받았다. 이장님은 내 소유가 되기 전 이 밭을 관리하던 분이신데 나의 강력한 농사 멘토시며 지금까지 친척처럼 가까운 사이로 지내시는 분이시다.

작은 과수원이라지만 생산되는 농산물이 주변과 나누어 먹기엔 좀 많다. 내 노임은 차치하고 농사짓는다고 들어간 비용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여분의 과일은 팔아야 했다. 첫해 수확을 박스에 담아 싣고 경매장으로 가는 중 참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자식을 세상에 내놓는 그런 기분이었을까? 남이 지은 과일과 비교해 보게 되고, 같은 값이면 좋은 값을 받고 싶은 그런.....

농사일과 병행하여 농장 한 곳에 닭장을 만들고(지금은 서각하는 공방으로 사용), 지하수를 파고 전봇대를 세우고 가마솥도 걸어놓고 두 마리 강아지도 가져다 놓고, 그리고 농지법이 허락하는 쉼터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쉼터가 남들이 보기에도 운치 있고 분위기를 살리는 모습을 가졌다. 바로 이동식 황토 농막 경사진 밭의 제일 위쪽 산자락에 터를 만들어 트랙에 싣고 와서 지



게차로 떠서 앉혀 놓으니 내가 생각한 농장의 그림이 완성된 것 같았다. 농막이름을 ‘소담산방’이라 지었는데 이후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픈 그런 것이 되었다. 아마 퇴직 후 김천을 떠난다 해도 들고 갈 듯 싶다.

농사일에는 기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정식 굴삭기 면허를 따고,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 운전을 배웠다. 김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들을 대여해 주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농장가꾸기에 매우 유용한 굴삭기는 내 주 특기가 되었다.

농사는 풀과 벌레와의 전쟁. 나는 이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여름 우기가 되면 말 그대로 풀 베고 돌아서면 또 풀이 나 있다. 강한 제초제를 치고 싶은 생각도 간간히 들었으나 참아야 했다. 과수나무에 치는 약도 두세 번 칠거 한번밖에 안치니 과일은 벌레들의 잔치 거기에 새들도 부리를 들이대고 거들어 댈다. 올해는 자두나무들이 냉해를 입어 수확물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힘드니 쉬어가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흙을 대하며 자연과 직접 소통하는 농사일, ‘대추 한 알’이란 장석주님의 시로 표현해보면 마음으로 다가올 듯하다. 힘들지만 재미와 행복도 듬뿍 주며 또 가치 있는 일임은 분명한데 남에게 권하고는 싶지 않다. 우선 몸이 힘들고 또 경제적인 보상도 변변

찮기에. 허나 주변에 젊은 사람이 농사에 입문한다면 말리고 싶지 않다. 농사도 10,000시간의 법칙이 적용되기에 입문 후 종목 선택을 잘하고 10년 정도 고생하며 규모의 농업을 갖추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는 텃밭수준이 딱 이다.

6년여의 시간이 흐르며 여러 경험을 겪었고 작으나마 노하우가 생겼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나름 컨설팅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소담산방은 문도 없고 담도 없으니 전원에서 즐기는 숯불구이나 닭백숙에 전통주 맛을 보시고 싶으시거든 언제든지 놀러 와도 된다. 건공 돌(소담이와 도담이)이 있어 짚어 댈 수 있으나 금방 친해지니 안심하시고, 흰 구름도 짜면 비가 된다는 말이 있다. 앞서 얘기한 괴테의 말은 ‘행동하라! 그럴수록 삶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인생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다.

삶에서 중요한 것이 노력이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노력은 무의미 할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삶을 풍부하게 하려면 소망을 머릿속에 머물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뜻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진정한 소망은 따로 있다. 그 꿈을 위해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으로 옮기자 다짐하면서 내 농장 소개 글을 마친다. E&C

부산기행 : 산복도로 마을



부산의 ‘釜’는 가마솥으로 ‘Cauldron Mountain City’라고 한다. 북산남해(北山南海) 사이 낀 평지가 좁아 집은 산을 오르거나 바다를 메꾸어 내려간다. 자연히 이런 지형은 산복도로(山腹道路)라는 공간을 낳는다. 멀리서 보면 산 중턱을 지나는 도로들이 배 속 창자처럼 차곡차곡 쌓여 ‘腹’이란 글자를 넣었다. 지대 높은 산복도로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항구가 통째로 드러난다. 한편 부산은 전쟁이 낳은 도시이다. 임진왜란, 한일합방, 한국동란의 역사를 빼면 논할 수 없는 곳이다.

낭떠러지 절벽 위 비탈길에 집이 다닥다닥 지어져 등고선 따라 도로를 내고 동네가 형성된 산복도로마을은 관광코스가 되었다. 부산을 페루 마추픽추, 이탈리아 나폴리 등 수식어를 붙이곤 하는데 빛의 색감이 달라 지상에서 같은 느낌을 주는 도시는 없다.

부산역 맞은편 텍사스 거리(또는 차이나타운)를 통과하여 낮은 언덕을 올라 운동 삼아 가 볼 만 곳이 일명 이바구길, 168계단이다. 40, 60, 120, 168이라는 수치는 계단 갯수라 동네마다 모두 다르다. 현지에서는 여고생 다리 알통 지수라 농담 삼아 말하는데 매일 가파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노고와 설움이 스며있다. 다행히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사뻐히 윗동네로 옮겨준다(무료). 도착하면 이바구공작소, 당산, 현대식 카페에 들릴 수 있다. 부산역 좌측으로 국제여객선 터미널, 우측으로 영도전경, 그 중간에 나열한 항만부두가 보인다. 파노라마식으로 구항(舊港)의 모습이 이어진다.



남포동 방향으로 산복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가면 중앙동 40계단이 나온다. 가는 도중 곳곳에 모노레일, 전망대, 공원을 볼 수 있다. 산복도로는 달리 말하면 도시 공동화가 진행되는 도시의 구심(舊心)이다. 시간의 지층에 그대로 쌓이고 남은 옛 아파트, 가옥, 목욕탕, 구멍가게가 나타난다. 산복도로 여행은 밤에 보는 쪽이 훨씬 좋다. 밤의 어둠이 마을을 펼쳐 낮의 지저분함을 감추고 빛으로 펼쳐질 때는 두 개의 다른 도시를 보는 듯하다.

초량에서 시작하여 중앙동-아미동-감천까지 연결되는 산복도로 중간에는 송도해수욕장과 혈청소가 있다. 천마산 또는 감천고개에서 바라보면 영도와 송도 사이 호수 같은 밤바다가 펼쳐지고 출항하



는 오징어잡이 배들이 일제히 환하게 등불을 켜면 검푸른 바다 위로 빛의 어시장이 열린 듯 장관을 이룬다. 그런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광은 환상의 너울을 타듯 보는 이의 가슴을 흔들어댄다. 안타깝게도 고층 아파트의 출현과 어항(漁港)의 쇠퇴로 그런 조망이 차츰 사라져간다.

영도다리의 굳세어라 금순아와 국제시장 장사치기 오빠는 영화와 노래로 남고 기억은 기억을 간직한 사람에게만 유의미하다. 결국 남은 것은 공간 자체 뿐이다. 건물과 사람은 파도 따라 밀려왔다 거품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사물이 동일 공간을 채우며 피어난다. 그래서 공간은 언제나 미래의 꿈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물의 기록을 한 번 더 눈에 담고 싶은 욕망은 모든 유한체의 운명이다. 산복도로 역사기념관에 걸린 사진들은 그런 존재증명 같은 것이다. 중앙동 40계단 기념관의 전시용 유리박스 안에서 45년 만에 ‘리칭의 스잔나’ LP 앨범 커버를 직접 보았다. 그 도너츠 판에서 청춘무곡(青春舞曲)이란 옛날 중국노래가 흘러나왔다. 그 노래는 아직도 유성기처럼 킷전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조선일보 맛집 탐방 기사에 나온 자갈치 ‘명물횟집’ 회정식은 생선회, 지리탕, 다양한 밑반찬으로 명불허전의 맛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1인분 35,000원의 가격에 대한 압박이다. 가성비 예민한 분이려면 고민 있을 듯. 자갈치 맞은편은 곱창 골목으로 일본인이 즐겨 찾는다. 부산에서는 흔히 ‘두투’라 말하는 상어고기와 꼼장어묵은 만원 정도면 자갈치에서 싹쓸이 먹을 수 있다. 처음 먹어본 사람은 생각보다 ‘맛있다’ 또는 생경한 비린 맛이라 싫어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나온다. **E&C**





만물수리점 뽀빠이 사옥관리팀 박세원



그이가 커다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쏜살같이 날아가는 걸 본 적이 있다. 그 순간 로버트 피어시그의 ‘선(禪)과 모터사이클 관리술(Zen and the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 소설을 떠올렸는데, 그 책은 기술 원리가 어떻게 철학으로 작동하는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말을 한다. 승용차는 외부와 차단된 채 달리고 오토바이는 바람, 냄새,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과 일체가 되어 달린다. 별명이 박가이버, 애칭은 뽀빠이라는 사옥관리팀 박세원 씨를 만났다. 별명은 직업과 역할 때문에, 애칭은 외모와 이미지에서 따온 작명으로 보인다. 그런데 올리브는 지금 어디 있을까?

‘영선(營繕)’이란 단어는 건축, 수리 모든 일을 통칭하는 말로 기계-배관-전기-용접-목공 등 다양한 작업과 연관 있다. 어지간한 자물쇠는 모두 따는 키맨이자, 차 시동 소리를 듣고 문제를 간파하는 분이다. 화장실 번기에 나무젓가락, 칫솔, 볼펜이 떨어져 막힐 때 해체도 한다. 기본 용접도 똑딱똑딱 해치운다니 한 마디로 핸디 맨(handy man)이다. 어떻게 그런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셨는지 물었다.

“어릴 적 부친을 여의고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저분한 것과 고장 난 것을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가 있었어요. 관심 가지고 이것저것 경험을 쌓다 보니 기술이 늘었고 늘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길 즐깁니다.” 맥가이버는 경험을 으뜸으로 뽑았다. 요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전화기부터 들고 AS 센터만 찾는다. 그러다보니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없다. 손수 만들고 고치는 능력의 감퇴는 핸드 메이드 라이프와 차츰 멀어진다.



박가이버의 살아온 이력을 듣다 보니 노량진-삼성동-용인-김천 시절로 나누어진다. 노량진 시장에서 가구 제작, 마흔 초반 입사, 55세 퇴직, 계약직 재입사, 한전서비스 자회사 이전으로 궤적이 그려진다. 인생을 더하기, 곱하기 셈법으로 계산하는 걸 싫어한 탓에 몸으로 부딪치고 손에 힘을 잔뜩 불어넣는 악력이라야 성에 찬다니, 비슷한 실존 인물이 그리스에 살았던 조르바다. 드디어 세 번째 별명이 드러났다. ‘순돌이 아빠’는 TV 드라마의 만물수리점을 운영하며 고장 난 물건을 척척 고쳐내는 마음씨 착한 만능인이다. 간혹 친근하게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

용인 시절 에피소드 한 소절이다. 퇴근하여 고단한 몸을 안방에서 천천히 녹이고 있을 때 ‘따르릉’ 전화가 왔다. “박 선생님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지금 지하 3층에서 뭘 좀 손보고 있어요.” 왜 순돌이 아빠는 엉뚱한 소리를 하였을까? “아, 얼마나 다급했으면 날 찾았겠어요. 부러 마음에 부담 주지 않으려 회사에 있다고 말합니다.” 후다닥 달려 나가는 순돌이 아빠의 뒷모습을 그려보았다.

지나온 나날이 주마등이요, 산천은 의구한 데 인결은 간데없다. “언제 적부터인지 사람이 사람을 알아봐 주던 시절이 지났어요. 사람은 정(情)으로 살지 비즈니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나누는 눈길도 적어지는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끊어지고 인간은 홀로 떨어진 섬처럼 되어간다. 순돌이 아빠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훈훈한 ‘화목’ 보일러라도 놓아야 할 때인 듯하다.

순돌이 아빠는 최근 용인에서 동탄으로 터전을 옮겼다. 올해 어머니는 94세, 두 딸의 아버지로 막내가 대학4년 졸업반이다. 인생 신조는 먼저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삶이다. 어디선가 “뽀빠이 아저씨, 살려주세요!!!” 올리브가 가냘프게 외치면 시금치를 털어 넣고 달려 나올까? 그의 마지막 애칭은 ‘바라바라’, 바위가 질주할 때 그는 스트레스를 털어버린다. 바라바라 바방뽕~~~ E&C



〈구멍가게 펜화〉 이미경 화가



해남 우리슈퍼, 전남 해남군, 56x115cm, 2019년

이미경 화가는 1970년 충북 제천출생으로 1994년 홍익대 서양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BBC, 크리에이티브 붐, 중국의 판단 TV 등에서 작품을 방송하였고 첫 책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은 프랑스, 대만, 일본 등에서도 번역, 출간되었다. 화가의 여러 작품이 국내 TV에 방영, 신문연재도 되어 이미 아시는 분도 많다.

먼저 지상전시회 과정을 조금 밝히면, 사보 출판을 하더라도 그림에 관한 저작권 또는 게재료로 비용을 지불 한다. 화가와 연락을 취하는 중, 통영의 '남해의 봄날' 출판사에서 '구멍가게,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라는 화보집이 출간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서적을 홍보해 주면 화보 그림을 무상사용해주겠다는 고마운 제의를 하였다. "구멍가게,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는 화가의 글과 그림이 녹아든 도서로 두터운 하드커버로 제본, 페이지를 열 때 마다 꽃과 나무, 구멍가게로 환한 빛의 느낌을 준다. 종이 질도 좋고 정성이 깃들여 소장하기에 좋다. 참고로 그림 작품은 모두 종이에 아크릴 잉크와 펜으로만 작업 했다.

구멍가게 그림은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노래를 떠올리게 한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영화에서 히로시마의 오노미치 거리가 나오는데 폭 좁은 돌계단에서 이어지던 하늘빛은 파란 하늘은 아니지만 흐릿한 봄날의 정취로 가득했다. 이미경의 펜촉화는 한국 고유의 색채감에 훨씬 가까운 느낌을 준다. 시간의 흐름 속에 소멸하는 사물에 대한 애정, 특히 구멍가게의 풍경을 펜이란 기록으로 남겼다. 안타깝게도 화폭 속의 구멍가게도 차츰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E&C**



신홍수퍼 가게안, 경북 청도군, 2019년



정다운수퍼, 인천 부평구, 50x50cm, 2020년



복사꽃가게 일부, 122x122cm, 2020년



친절수퍼, 경남 통영시, 35x35cm, 2018년



향교수퍼, 전남 함평군, 122x122cm, 2018년



직지사역 기차카페

김천에는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시니어 클럽이 운영 중이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에게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이다. 크게 공공시설 봉사에 기여하는 공익형, 프로젝트 형태로 움직이는 시장형, 농림어업에 숙련종사자나 전문가를 파견하는 인력파견형으로 분류한다.

한 번 가볼 만한 장소로 기차카페를 추천받았다. 직지사역에 열차카페가 있다는 소식이 금시초문인지라 얼핏 섬진강 기차마을을 먼저 떠올렸다. 새마을 기차 2량을 개조한 카페는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 직지사가 관리한다. 서빙하시는 분들이 머리 희끗희끗한 분이란 이야기와 함께 역과 기차라는 낭만적 기사거리로 찾아갔다.

연신 내리는 빗속에서 아담한 직지사역에 도착, 좌측으로 기차를 개조한 카페가 바로 눈에 들어온다. 열차의 실내는 양 옆으로 초록, 주홍색 의자와 작은 테이블, 벽면에 빼곡한 포스트잇 방문기가 붙어있다. 계산대 겸 주방으로 보이는 중앙은 열차 식당칸이 연상되고 현재 운행 중 기차와 똑같은 인물 캐릭터도 벽면에 그려져 있다. 찬장 한 곁에 가득 꽂힌 LP 판, 복도에는 자쭈빛 역무원 복장 3벌이 모자와 함께 걸렸다.



차창 너머 붉고 파란 테 걸친 KTX열차가 십여 분 간격으로 지나치는 풍경도 카페에 앉아 바라볼 수 있다. 기차 안에는 60대 중반 여성 두 분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기차카페 근무는 시니어클럽 시장형 카테고리에 속하고 참여대상이 만 60세 이상의 여성만 가능, 1일 최대 8시간 시급제로 운영한다. 며칠 간격으로 교대하는지 알 수 없지만 카페 메뉴는 생각이상으로 다채롭다. 차와 커피의 음료수, 피자과 스낵, 돈가스 같은 커트렛 경양식 등의 페이지 사이를 뒤적이다 포기하고 추천을 요청했다.

비오는 차가운 날씨인지라 따뜻한 단호박 크림수프가 제격이란다. 25년 전 광복동 비엔씨 제과점에서 둥근 바케트 빵 안에 든 크림수프를 처음 맛보았을 때 그 발상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결혼식 뷔페에서도 나오는 흔한 요리이다. 이 요리는 진화하여 단호박으로 바탕을(그릇을) 바꾸었다. 단호박 머리꼭지를 따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프가 나왔다. 단호박 속살과 크림 수프의 융합이라 할까, 궁합이 좋아 고소하면서도 온몸을 따뜻하게 녹아들게 하였다.

기차칸은 여름철 손님이 가장 많고, 주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 둘만 있어도 좋다는 연인, 느릿하게 흐르는 시간을

음미하려는 신사분들로 채워진다. 멀리 타지에서도 소문 듣고 방문하는 관광객이 있다.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절찬 메뉴는? 단연 메론 빙수이다!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다. 영업은 오전 11시~오후 8시, 야행성 인간에게 조금 불리하다. 명절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기차와 역은 어떻게 회상의 대상이 되었을까. 페티 페이지의 테네시 왈츠 노래가 울려 퍼지는 철도원 영화와 은하철도 999의 노랑머리 여인 메틸이 생각한다. NHK 텔레비전에는 주기적으로 폐역과 폐선에 얽힌 사진과 추억을 나누는 토크쇼를 본 적이 있다. 이 지상에 처음 자동차와 기차가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소음 또는 굉음에 시달려 마치 괴물 보듯 조용한 삶이 부수어졌다고 탄식하였다.

시간의 흐름과 적응은 놀랍게도 사람의 인식을 바꾸어 놓는다. 차츰 익숙해지니 기차길 옆 오막살이 아기도 칙칙푹푹 소리를 들으면 잘도 자게 되었다. 비둘기, 통일, 무궁화, 새마을호 기차는 회상의 터널을 지나 아련한 추억의 궤도로 달리고 있다. 그 시절 풍경과 기억을 그리워하는 분에게 카페를 추천해 본다. 개나리와 벚꽃 필 무렵 경부선 상행 무궁화호를 타면 낙동강변 마을과 희뿌연 봄의 색채, 그 변화의 재재거림을 느리게 감상할 수 있다. 빠르면 보이지 않는 사물의 속삭임 같은 것이다. **E&C**



우리나라 유일한 향토민속주 금정산성막걸리



우리나라 막걸리 중에서 유일하게 향토민속주로 지정된 민속주 제1호(1980년) 금정산성막걸리. 부산외곽 금정산성 중턱 해발 450m 산성마을 먹거리촌 유한회사 금정산성토산주 양조장에서 생산한다. 하루 평균 750ml 병을 기준으로 6천 병 가량이 최대 생산량이라는 금정산성토산주 양조장은 국내 다른 양조장들에 비해 비교적 위생적이고 기계화되어 생산되고 있었다.

흔히 금정이나 산성막걸리라 불리우는 금정산성막걸리는 그 유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선 초기 이곳 화전민들이 생계 수단으로 누룩을 빚기 시작하여 숙종 32년(1706년) 왜구들의 침략에 대비해 금정산성을 쌓을 때 군졸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유래가 있다.

막 걸러서 만들어 막걸리, 농가에서 만들어 농주, 탁한 색깔이어서 탁주 라고도 불리우는 전통주 막걸리는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이 풍부한 탓에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술이었다.

주식이던 쌀이 부족하던 1960년대에는 정부의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쌀을 원료로 하는 술이나 누룩의 제조가 금지되어 맛과 품질이 떨어지는 보리, 밀 등으로 빚은 저품질 막걸리로 생산되자 소비자들은 이를 외면했고 서민층은 소주로, 중산층 이상은 맥주와 양주로 소비추세가 기울어졌다.

이로 인해 금정산성막걸리는 지역내 밀주로 전해 오다 1978년 대통령령으로 지역특산물로 양성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전통 민속주 제도가 생기면서는 민속주 제1호로 지정 받았



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판매가 되지 못하다 2001년부터 주세법 개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판매한다.

금정산성막걸리는 지하 182m 지하수를 사용한다. 보통 누룩은 밀, 보리, 옥수수, 쌀, 콩, 팥, 귀리, 호밀 등 여러가지가 사용되지만 금정산성 막걸리용 누룩은 통밀을 굵게 갈아서 틀에 넣지 않고 발로 둥그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족타식 누룩 황국균 종균을 사용한다. 국산쌀 정부미 일반미를 절반씩 섞어서 사용하는 고두밥을 누룩하고 섞어 독에서 물과 함께 발효를 시키는 단사입이라는 전통 방식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막걸리 제조업체가 고두밥에 누룩곰팡이 균을 붙여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누룩없이 숙성으로 막걸리를 만드는 일본식 입국제조 방식을 채택 하고 있지만 누룩으로 발효시키는 전통방식이여야 누룩 특유의 깊고 묵직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전통 양조방식대로 제조해 일체의 인공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금정산성 막걸리의 배합비율은 쌀 140kg, 누룩 80kg, 물 180리터이고 숙성 온도는 20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정산성 막걸리는 도수 8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도주 추세에 따라 6도의 막걸리도 생산되는데 장거리 택배용으로는 다른 막걸리에 비해 도수가 높은 8도 부산지역 내수용으로 는 6도로 생산한다.

1998년부터 산성막걸리 재건에 참여해 6대째 금정산성막걸리의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는 유청길(63세) 대표(농림 축산식품부 막걸리 식품명인 제49호, 2013년 12월 3일)는 국내에서 금정산성 막걸리에서만 유일하게 누룩종균을 보유하고 있다며 누룩 황국균 종균에 대한 자량이 대단하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걸리를 빚는 원리는 누룩, 쌀, 물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으로 입국으로도 막걸리를 빚을 수 있지만 좋은 효모균이 들어 있는 누룩으로 빚은 막걸리에서는 일반적인 첨가물로는 낼 수 없는 맛이 있다. 유청길 대표는 막걸리 잘 만드는 비법은 좋은 누룩과 좋은 물이면 독특한 맛과 향을 낸다고 한다. 국내 유통망이 다른 전통 막걸리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에는 2020년 9월 출시를 목표로 경기도 이천에 서울 공장을 지어 수도권 주민들도 금정산성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E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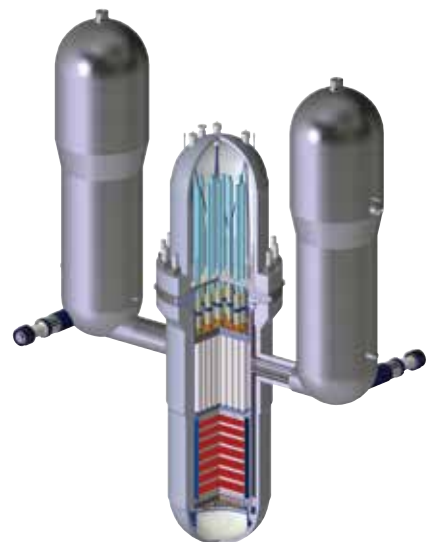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성로 453 금정산성막걸리(051-517-0202)는 공식 홈페이지 <https://sanmak.kr>에서 택배로도 판매합니다.

한국전력기술 해양부유식 소형원자로(SMR)

BANDI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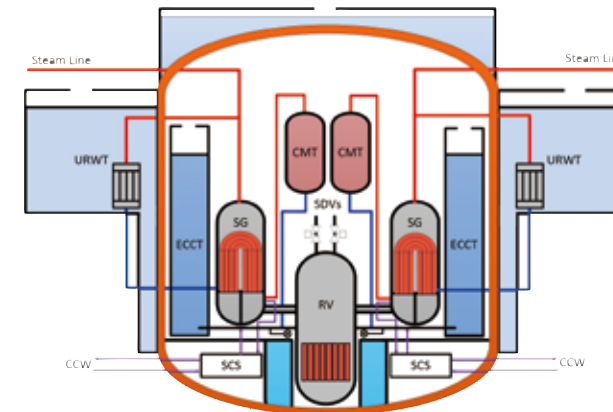


스스로 빛을 내어 어둠을 밝히는 반디처럼,
소형원자로 반디(BANDI)도 외딴 오지와 섬에서
깨끗하고 안정적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다.



BANDI 60은 우리회사가 45여년의 상용 원전설계를 통해 축적해온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개발한 소형원자로이다. 해양부유식 원전은 바지선에 장착하여 오지, 섬, 해양플랜트 등에 깨끗한 전기 및 난방 공급, 해수 담수화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출력에 따라 변경이 용이한 단순한 설계를 기반으로 유연한 출력이 가능하며, 원자로 2기를 탑재할 경우 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BANDI 60은 타 기술과 협업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으며 특히 조선해양과 상생 사업모델 창출, 재생-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BANDI 60은 중앙집중식 대규모 전력시장보다는 오지, 섬 등의 다양한 특수 에너지 수요에 맞춰 개발한다. 화석연료 대비 깨끗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합리적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주기 운전으로 높은 가동률을 달성할 수 있다.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인허가 불확실성 제거, 계통 단순화와 공장모듈 제작 및 조립으로 건설 공기를 단축하는 점에서 높은 경쟁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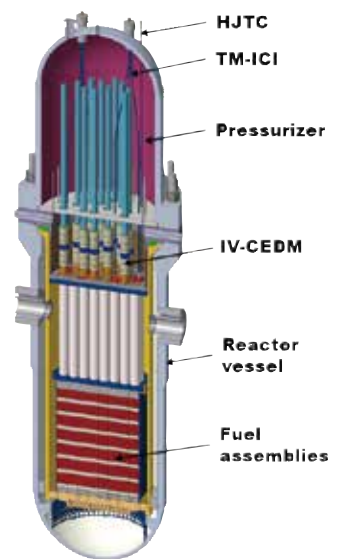


안전설계

BANDI 60은 사고 시 주민들 대피가 필요하지 않도록, 원자로의 계통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외부 동력이나 운전원 조치 없이도 원자로 안전을 보장한다. 특히 주요사고 배제를 위해 고유안전 특성을 강화하였으며, 중력-자연순환 등 자연력과 축전지만 사용하는 완전 피동안전계통 설계를 하였으며, 능동 보조냉각계통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강화하는 안전설계를 하였다.

혁신설계

BANDI 60은 원자로 용기와 증기 발생기를 노즐 대 노즐로 용접하여 대형배관을 제거하는 블록형 원자로 냉각재 계통 설계, 제어봉 구동장치를 원자로 용기 내부에 설치하여 원자로 용기 상부의 노즐을 제거한 내장형 제어봉 구동장치, 원자로 용기 상부 공간을 가압기로 활용하는 원자로 용기 일체형 가압기, 원자로 반응도 제어를 제어봉 집합체 및 가연성 흡수봉으로 수행하는 무봉산 노심설계, 자율 제어 및 자동화 강화로 운전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운전과 같은 혁신설계를 도입하였다. E&C



현판,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미학코드



도선서원(한석봉 글씨)

현판의 개념 -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국의 옛 건축물은 한결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화려하지 않으면서 고풍스럽고 단아하고 정갈한 멋이 살아있다. 이러한 옛 건축물에 인문적 가치의 생명을 불어넣는 글씨를 새긴 나무판을 현판(懸板)이라고 한다. 현판은 글씨나 그림을 나무판이나 종이 또는 비단에 쓰거나 새겨서 문 위에 거는 액자류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건물에 거는 모든 나무판을 일컫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 건물 정면의 문과 처마 사이에 거는 나무판을 편액(扁額)이라고 한다. 편액은 건물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현판보다 좁은 의미로 쓰인다.

현판의 유래 - 현판이 언제부터 유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 진(秦) 나라 때부터라고 한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 한(漢) 나라 고제(高帝) 때 개국공신인 소하(蕭何)가 궁궐에 다 창룡(蒼龍)과 백호(白虎)를 써 붙였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아마도 삼국시대에 한자가 전래된 직후부터로 추정되지만, 잦은 전란과 외침과 화재로 인해 전해지는 것은 거의 없다. 그 가운데 현재 가장 오래된 현판 글씨로는 공주 마곡사의 '대웅보전(大雄寶殿)'과 전라남도 강진 만덕사의 '만덕산백련사(萬德山白蓮寺)'로 통일신라시대 때 김생(金生)의 글씨로 전해진다. 참고-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좌 :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 우 : 영호루

고려시대에는 고려 공민왕의 글씨로 봉화 청량사의 '유리보전(琉璃寶殿)',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無量壽殿)' 안동의 '안동웅부(安東雄府)'와 '영호루(映湖樓)' 등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참고-영호루

현판 사용이 좀 더 보편화된 것은 조선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조선 건국 후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1342~1398)은 새로 낙성한 궁궐과 종묘에 왕명으로 직접 명칭을 짓고 현판을 걸어 왕조의 건국이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백성들의 교화를 장려하는 수단의 하나로 포상하는 뜻의 현판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15세기에 오면 사대부가에서도 정자를 짓고 정자의 이름을 현판에 새기는가 하면, 16세기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 선현의 유덕을 기리기 위한 서원이 건립되면서, 서원 공간에 건물의 명칭을 적은 현판을 게시하였다.

현판의 유형 - 현판은 장소와 내용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 주거공간으로 집안의 훌륭한 선조가 후손들에게 물려준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는 '당호(堂號)', 둘째, 교육공간으로 국가나 선현들의 교육철학과 학문정신을 담고 있는 '학교'와 '서원(서당)', 셋째, 수양공간으로 자연과 벗하며 선비들의 수양과 여유, 풍류를 담고 있는 '누정(樓亭)', 넷째, 추모공간



으로 선조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고 있는 '재사(齋舍)' 등이다. 참고-오현(환재 박규수 글씨)

한국국학진흥원은 일찌감치 현판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민간이나 문중으로부터 기탁을 받았다. 그래서 현재 서원이나 향교, 종택, 누정, 재사 등에서 기탁받은 수량이 대략 1,300여장에 이르고 있다. 대체로 현판의 제작 시기는 조선중기와 후기 및 근대에 제작되었고, 그 내용은 퇴계학파의 중심지답게 교육과 교화, 수신에 관계되는 유교적 내용의 현판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현판의 글씨도 국왕을 비롯하여 양반관료, 재야의 문인학자, 명필가 등 다양하며, 글쓴이의 신분이 다양한 만큼 필치와 풍격도 다양하다.

아울러 현판이 주는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여 2012년 11월에 국내 유일의 현판전시실을 개관하였다. 아울러 현판이 유교문화의 중요한 유형자산임을 알리기 위해 2016년 5월 19일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에 신청하여 등재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는 현판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정신적 가치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측면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을 새롭게 개관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직접 현판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도산서원(한석봉 글씨)



오현(환재 박규수 글씨)



백운정(미수 허목 글씨)



산고재사(소우 강벽원 글씨)

현판은 간판(看板)과는 달리 선현들의 독특한 현판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사서오경으로 대표되는 유교경전이나 선현들이 남긴 문집에서 몇 글자 안 되는 구절을 인용하여 명명하였다.

그런데 이 몇 글자 안 되는 현판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건물의 기능과 용도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 생활했던 선현들의 삶의 지향이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현판 글씨를 통해 서예사를 복원할 수 있고 글씨의 시대정신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각공예의 예술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백운정(미수 허목 글씨)

한마디로 현판의 의미는 '출입관성(出入觀省)', '고명사의(顧名思義)'로 대별할 수 있다. 수없이 그 건물을 드나들면서 건물을 상징하는 의미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성찰해 간다. 선현들이 남긴 현판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아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에다 자신을 성찰하는 좋은 구절을 취해 이름을 부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참고-산고재사(소우 강벽원 글씨)

요컨대, 현판은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하나의 미학 코드로써, 현대미술의 한 분야로써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현판은 대중들에게 그 공간을 상징하는 뜻을 시각에 호소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홍보성을 띤 뛰어난 예술 작품이다. E&C



회사와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1990년 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시작하여
이후 책임연구원, 1997년 한기로 이적하여 울진5,6호기,
신고리1,2호기, 신고리3,4호기, UAE원전
원자로계통설계 PM, 잠시 회사를 떠나 한수원
해외사업처장, 원전수출협회장, 회사 복귀 후
마케팅전략실 파견 그리고 2020년 말 정년퇴직.
내 일생의 30년 직장경력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Why me?」를 물어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
즉 나만의 차별성을 세 가지 이상 답해야 성공할 수 있다.
generalist보다는 specialist가 될 것을 권한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자

회사가 글로벌해졌으면 좋겠다. 바뀐 환경 탓에 지난 시절
회사가 잘 나가던 때처럼 국내원전, UAE원전 설계와 같
이 외부에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렇다면 스스로, 특히 해외에서 먹거리를 찾아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분발이 필요하다. 해외
에서 회사 인지도를 높여야 하겠고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
로 해야 한다. 회사 소개 브로슈어와 동영상은 현재 수준
으로는 곤란하다. 시장 요구에 맞도록 우리가 팔 상품을
포장해야 하고,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해 시장을 다니며
회사를 알리고 먹거리를 찾는게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 중국 회사들은 젊고 자신감
넘치는 직원들을 앞세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넓고 할
일 많은 글로벌 시장에서 회사가 진정한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가 되기를 바란다.

돌이켜 보니 참 괜찮은 직장이었다. 요즘 「나이 들에 관
하여」라는 책을 읽으며 well aging을 준비하고 있는 것
도 회사에서 받은 큰 혜택이다. 무엇보다도, 퇴직하는 선
배들에게서 흔히 들었던 대로, 나도 큰 과오 없이 그리
고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직장생활을 마감하여 운이 좋
았고 함께한 동료들과 회사에 감사할 따름이다. E&C

회사에 영원한 내 것은 없다

나의 일, 보직, 사무실..... 회사에서 잠시 빌려준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 내 자리에 이미 많은 사람이 다녀갔고
후에도 여러 사람이 올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니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현재 위치에서 매사에 내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회사와 동료들을 위해 베풀어야 후회
가 없다. 계급장 달았다고 으쓱거릴 것도 아니다. 내 것
이 아니므로 언젠가는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성이 있으면 좋다

10여 년 전 회사에서 보내 준 고급경영자과정에서 「Why
me?」라는 걸 배웠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Why
me?」를 물어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 즉 나만의
차별성을 세 가지 이상 답해야 성공한다는 얘기다.
회사에서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여러 면에 기회가
많아진다. 무엇이든지 나만의 차별성을 가지는 게 좋다.
나는 generalist보다는 specialist가 될 것을 권한다.



한국에도 있다. 라벤더팜! (고성 하늬라벤더팜)



안명훈 원설단)계측제어설계그룹 과장 / 아이폰 11 PRO

매년 고성에서 라벤더 축제가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축제는 하지 않고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장할 수 있다. 라벤더는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 사이 개화한다. 화려한 보랏빛 꽃의 정원, 이제 멀리 일본에 가지 않아도 좋다.

예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개콘에서 다산의 여신, 출산드라가 나와 “낳아라!” 외쳤지만 한국도 가파른 인구절벽 구간에 들어섰다. 이웃 일본은 노동인구가 없어 80세 정년을 시행하는 기업도 나왔다.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결혼과 육아는 줄어든다. 사랑, 결혼, 가족이란 전통관습 구도가 깨어지고 자아실현, 경력, 행복이란 자유의지 시대로 사회는 전환 중이다.

요즘 양육이 애국인 시대에~ 첫째가 나오면 처음이라 신기하여 온통 신경을 기울이지만 둘째에 대해선 별로 기억에 없다는 사람이 많다. 애 하나만 달랑 낳는 세대를 보면 외동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형제자매도 없이, 그런 걱정을 나이 많은 이는 한다. 어린 햇것들을 보면 마냥 예뻐 보인다. 노랑 병아리의 종종걸음, 발바닥이 부드러운 강아지의 무구한 눈망울을 보는 듯하다.

이번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모습을 기획하였다. 애석하게도 마스크가 필수라 사진 속 모든 얼굴이 가려졌다. 대개 아이들은 동그란 얼굴에 앞이마가 툭 튀어나온 귀여운 사진이 많았다. 양증맞은 체크무늬 모자, 노란 멜빵가방, 보라색 셔츠에 아들이 오른손을 뻗어 아빠랑 손등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을 뽑았다. 아들을 바라보는 아빠의 시선, 무언가 흠뻑 담아 주고 싶은 얼굴, 이 세상 부모 마음은 다 같은 것이겠지만 도대체 누구 집 애 아빠일까?

사진 속 주인공을 아시는 분은 rainbow@kepco-enc.com으로 9월 30일까지 메일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다섯분께 커피 쿠폰(일만원)을 제공합니다.

경영관리본부

결연마을 황항리

증산면은 김천시 최남단 위치, 성주군과 접한

행정구역이다. 김천시 전체인구의 1% 남짓 적은 주민이

산다. 아흔아홉 고개 넘는 산골이라 증산면에는 ‘오지’라는

말이 늘 따라붙는다. 산악지형이 험준하고 급경사가 많아

황항리 결연마을을 찾아가는 길은 굽이굽이, 지그재그

산길도로를 계속 달려야 했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LED조명 및 노후 전기배선 교체를 완료한 황항리

결연마을을 알리고자 취재하였다.



이장님이 과수원 쪽으로 성큼 걸어가 비에 젖은 검은 나뭇가지 아래 자두 세 알을 따서 한번 맛보라고 주신다. 보기에 푸르탱탱 한데 먹어보니 달콤한 과즙과 상큼한 육질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작년 결연마을 회사 직거래 장터에서 사과를 조기 완판하였다.

귀촌으로 혼자 오면 적적할 터이니 두 세분 함께 오면 마을 주민과 잘 어울리게 다리를 놓아 주시겠다고 한다. 간단한 치료는 증산면보건소를 이용하지만 병원을 가려면 시내로 나가야 한다. 성주와 김천 어디로 가더라도 어중간한 위치 때문에 교통에 애로가 있는 듯 보인다.

이장님 댁은 수령 400년 넘는 거대한 느티나무 뒤쪽, 가지마다 뻗어난 기세가 늠름해 보였다. 그 아래 폭우로 불어난 시냇물이 호호탕탕 흐른다. 마을공원이라 정자가 한 곁에 서 있다. 황항리 마을과 결연을 맺었는데 혹시 사과꽃 딸 때나 과일 수확할 때 일손이 필요한지 물었다. 지금은 철이 아니라 어렵고 30가구 사는 작은 마을이라 다음에는 가구마다 전기 밥솥 하나씩 받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장님은 계룡대에서 30년간 군무원으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분이다.

“저 우에로 오신가 본데 거짜는 임도구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길이 조아에.” 차가 출발할 때까지 함초롬히 비를 맞으시며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다. 차창을 내리고 ‘고맙습니다, 이장님’ 말을 하는 순간에도 비가 차 안으로 들이닥친다. E&C



“비가 억수로 오는데 우째 올라고 그라는지요?” “네. 이장님 장마철이라 따로 날 잡기도 힘들고 오후 3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불구불 출렁이는 산길을 따라가니 비는 잦아졌지만 넘나드는 산봉우리와 언덕마다 짙은 안개가 바람 따라

일렁인다. 여기서 역사 한 토막. 김천은 낙동강 전선으로 남하하는 북한군 전진기지이자 증산면에는 북한군 불꽃사단 3,000명이 주둔하여 국군과 경찰의 연합부대와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 곳이다. 인근 계곡에는 유명한 청암사 고찰과 수도암 말사가 있다.

우비를 걸쳐 입고 노인회관으로 느릿느릿 걸어오는 분이 김창국 이장님이다. 30평 정도 옥상의 태양광 설비와 LED 교체사업으로 조명이 바뀐 여러 방을 촬영하였다. 이장님이 회사 로그가 선명한 대형 냉장고를 가리키며 진공청소기와 함께 우리 회사에서 모두 마련해 준 것이라 설명한다. 황

항리 마을의 30가구 집집마다 LED 조명으로 교체한 덕분에 한 가구당 대략 70만원 비용의 효과를 보았다. 애석하게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회관은 다시 문이 잠겨 내부는 썰렁했다. 큰 방에 안마의자, 향나무 반신욕기 2대가 덩그러니 방안을 지키고 있다. [태양광 설비에는 대략 6천만원 소요, 20년간 전기판매 수익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

황항리 마을은 아늑한 분지형이다. 도란도란 내리는 빗속에서 띄엄띄엄 집들이 깊은 잠속에 빠진 듯 고요하다. 마을이 해발 570m 위치라 열대야 같은 것은 모른다. “여는 모기도 없어예.” 남향 햇살이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김천에서 가장 이쁜 테를 가진 마을이라 자랑한다. “오데 이리 예쁜 마을이 있겠능교.”

일교차가 커 농산물로서 사과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그 다음 복숭아, 자두 농사는 소량 짓는다. “그라이 여는 사과와 복숭아는 김천에서 수확이 다 끝나고 난 뒤 30일 이후에 따기 때문에 김천에서 사과와 복숭아 당도가 최고 아인가에.”

We Move the Power Plant |주|아이스기술



(주)아이스기술은 2000년 7월 창립 이래 국내외 발전소 건설의 계측제어분야 상세 설계용역 수행을 기반으로 최고의 설계기술을 구축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발전 시장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소의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의 성능개선 및 신기술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변화를 가져왔다.

(주)아이스기술은 국내·외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보조 감시 시스템 및 전기설비 고장예측 진단 시스템 등을 공급해 왔으며, 최근 정부의 환경오염물질 저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수평 연소 기술을 이용한 저녹스 버너”를 개발하여 국내 5개 발전소로부터 개발선행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친환경을 고려한 미래 지향적인 신소재, 신제품 개발·공급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감사 및 분석시스템, 유지 및 건설, 기계기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KEPCO E&C와의 협력업무로 당진9,10호기, 신보령1,2호기, 태안 IGCC, GS동해전력, 서울북합화력 등 계측제어분야 상세 설계 역무를 수행하였고, 강릉안인1,2호기는 현재 수행 중에 있다. 특히 1000MW급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와 석탄가스화복

강신섭 대표



합발전 플랜트의 계측분야 상세 설계 및 성능개선 사업 설계를 통해 국내 최고의 발전 플랜트 설계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 및 분석시스템 사업은 창사 이래 국내·외 플랜트를 대상으로 주요 발전 설비를 감사 및 진단하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 및 신기술 인증 취득 등으로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SLMS (Stator Leak Monitoring System) 제품은 100% 국내 기술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원자력 발전소와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계기기 사업은 급변하는 국내·외 발전시장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기술 및 제품의 국산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Wall (Short) Sootblower”를 국산화하여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그 밖에 S/H R/H CCTV, Scale 방지 장치에 대하여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 완료 후 발전설비 운영 체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지 및 건설 사업은 다년간 플랜트 경상정비 및 전문 공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발전소의 전기계장 공사, 기계설치 및 보수공사, 소방 공사,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고 있

으며,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요기기와 장비 등 계통 설비의 시운전, 상업운전, 정비 용역업무로 발전소 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보령화력 화재 당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100일간의 기적을 통해 복구공사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찬사를 받았다.

(주)아이스기술은 매일 아침 전 직원이 다양한 분야의 동영상 시청 (5~10분), 사내 동아리 활동 및 다양한 행사 (볼링 대회, 문화 활동, 워크숍 등) 등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기하고 있고, 명절선물·연차휴가 촉진제도 등 복지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주)아이스기술은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즐겁게, 건강하게, 보람 있게의 사훈을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알차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E&C



에세이

일꾼의 말

강지연, 이지현 지음 | 2020년 7월 25일 출간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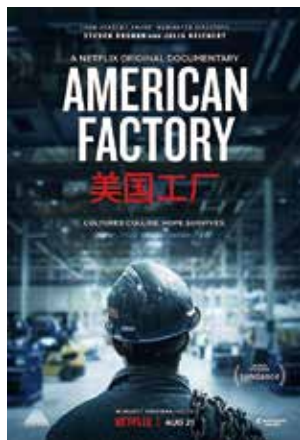
일꾼이 되는 법부터 일 잘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는 ‘비즈니스’ 에세이
취업의 벽을 넘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입사 첫날부터 몰아치던 막막함을 기억할 것이다. ‘업무용’ 컴퓨터 앞에서 여덟 시간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가 고역. 할

일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유관부서에 보낼 메일 한통도 자리로 걸려 오는 전화 한통 매끄럽게 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 모든 직장인이 겪었을 이 막막함의 근원은 무엇때문일까?

다큐

아메리칸 팩토리

스티븐 보그나 감독 | 넷플릭스 상영중



2020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상 수상작
공장은 문을 닫고 일자리
는 사라진 오하이오. 한 중
국 기업이 그곳에 공장을
연다. 희망이 등자를 튼다.
실업난은 해소되었지만, 두
국가의 문화가 충돌하면서
도시에는 암운이 드리운다.
버락 오바마 부부가 설립한
제작사가 선보이는 다큐멘
터리.

기록

코로나19 사태의 현장에서

김미경 외 지음 | 2020년 7월 14일 출간 | 15,000원



“집단지성의 승리, 김천의료원
70일간의 기록”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해제되기까지 ‘김천의료원’의
79일간의 기록. 두려움으로 시
작했지만 다시 사명감으로 코
로나19 확진환자와 직접 대면
하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시설,

청소 담당 직원 등 코로나19와 싸워 이겨낸 김천의료원, 그들
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방호복 속 고인 땀방울은 코로나19에 의연하게 맞선 우리 영
웅들의 희생과 수고의 결정체였다.

YouTube

승우아빠



고기는 왜 구워먹었을 때
가장 맛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마이아르
반응’에 있다. 이 과학적 원
리를 바탕으로 소개한 스테
이크 조리법으로 일순간 유
명해진 유튜브 채널. 가법

고 위트있는 진행과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서피, 초
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 주의점을 알려준다. 가끔
자신도 실수를 하여 요리를 망치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지
만 그는 요리경력 15년 차의 베테랑. ‘세상 간단한 시리즈’, ‘사드
세요.....제발 시리즈’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눈과 마
음을 즐겁게 해준다.

상주 중앙시장 장 보는 날



우리 회사는 경북, 부산, 대전 등 전국 15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본부별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물품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7월 7일 경영관리본부 100여명 직원은 상주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함께 장 보는 날을 가졌다.

상주는 삼백(三白) 고장으로 쌀, 누에, 꽃감으로 유명하다. 꽃감이 숙성되면
서리 내린 듯 흰 꽃이 피니 모두 맞는 말이다. 이처럼 이름과 실상이 맞아
떨어지는 걸 ‘명실상부’라 한다. 상주는 언어적 유희로 이를 ‘명실상주’라
슬쩍 바꾸어 애칭으로 사용한다. 상주 중앙시장은 27장으로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 눈 대충으로 따져 보아도 김천보다 시장규모가 2~3배 훨씬 크게 보였다.

중앙시장의 오미(五味)는 돼지국밥, 수제떡, 보리밥, 손칼국수, 통닭을 꼽는다. 처음 시장에 도착하였을 때 근처 손칼국수
식당이 많아 보인 이유이다. 장작 불때우는 가마솥 내음이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방앗간과 연계된 떡집이 제법 있었다. 중앙
시장은 꽃감꿀떡으로 널리 알려졌다. 제철이 아니라 아쉽다. 중앙시장에서 향아리 및 옹기류, 화초 및 과실수를 눈여겨
보았다. 사과, 모과, 블루베리 나무를 심어보면 어떨까. 직원과 함께 장을 보며 시장을 거닐며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다.

마지막, 운이 좋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고려분식’. 다행히 길게 늘어진 줄이 없었다. 이 식당은 만두로 여러 방송매체의 전파를
타다. 특히 튀김만두 맛이 최고라는 직원들의 현장 평가. 약간 특이한 만두소로 빚어져 있다. 그 밖에 쫄면, 우동, 김밥,
돈가스도 불티나게 팔린다. 좌석 회전율이 무척 빠르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E&C**

독자와의 수다 사보 뒷풀이

교정은 ‘김매기’, ‘잡티 제거’, ‘화장 고치기’ 등 여러 표현으로 불립니다. 교정 작업은 섬세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교정이 힘든 이유는 영어와 일본어가 우리말에 드리우는 그림자 지우기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말에는 본래 수동형도 없고 과히 친하지도 않습니다. 또 세대별로 어투라는 습관이 있지요. 자신이 쓴 글을 예쁘게 가다듬으려면 교정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말을 바로쓰자는 좋은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일찍 좋은 습관 들이면 나중에 나쁜 습관에 물들지 않습니다. [추천도서 :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김정선]

교정 보는 사람마다 읽기 흐름 박자나 단어 민감도가 모두 다릅니다. 교정을 한다고 똑같은 글을 거듭 읽다 보면 말이 꼬이는 맴돌이 현상도 나타나고, 자기 눈의 ‘체’로 걸러지지 않는 이상한 표현을 제3자 눈을 빌어 찾아내기도 합니다. 간혹 홍보팀에는 교정을 한꺼번에 보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빨리 마감하여 인쇄로 넘겨야 하기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동시작업을 합니다. 눈이 많을수록 그 만큼 에러 수도 줄어듭니다. 교정을 잘 보면 아름다운 글의 정원 이 됩니다. 그러나 인쇄가 끝난 후 꼭 ‘나 여기 있지!’ 놀리는 그런 오자, 탈자들이 나타납니다. 외국어 학습에 들이는 공의 천분의 일, 백분의 일이라도 우리말에 관심을 기울이면 자기가 쓴 글이 꽤 좋아집니다.

돌발퀴즈

1. 직지사역 바로 옆에는 새마을호 기차 2량을 개조한 기차 OO가 있다.
2. 7월 15일 코로나19 피해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지역농산물 000 나누기 행사가 있었다. 7월 3일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김천OO 특판행사도 있었다.

퀴즈 문제는 순서대로 ‘O’에 해당하는 각 단어의 첫째 글자를 따로 모아서 000의 3글자를 만들어 보세요.

응모방법

‘O’에 들어가는 단어를 **2020년 9월 29일까지** rainbow@kepc-enc.com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독자의견, 이달의 한컷을 보내주신 독자들에게도 각 5인을 추천하여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참여 안내

9/10월호를 읽고 독자의견이나 사보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화평, 시, 수필, 공트, 소설, 사진 등 제한없는 분야에서 여러분의 원고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당첨자 발표

◆ 돌발퀴즈 : 도서문화상품권 2만원

- 김대우 (토목환경기술실)
- 임유진 (국내건설사업그룹)
- 최창섭 (기술전략실)
- 안명훈 (계측제어설계그룹)
- 이미라 (해외사업그룹)

◆ 이달의 한컷! : 커피쿠폰 1만원

- 장근욱 (전기계측기술실)
- 정재호 (PSA&PSR사업그룹)
- 장현석 (신사업개발처)
- 박평원 (원자력기술실)
- 김성민 (토목환경기술실)

◆ 독자의견 :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

- 차성규 (전기계측기술실)
- 박호석 (토목건축기술실)
- 정상인 (혁신성장실)
- 박종효 (사업관리기술실)
- 김윤영 (사외독자, 대전시 중구 충무로)

지난호 사보를 읽고(독자의견)



- <선산 장날에 가다>가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김천에 온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선산 장날’은 아직 가보지 못했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가족들과 녹두빈대떡, 우뭇가사리 콩국, 아들이 좋아하는 도넛과 파배기 등을 먹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경북’ 코너에서 다양한 경북의 참 모습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해당 지역/장소에 대한 지도도 소개되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계측기술실 차성규 부장)

- KEPCO E&C Family를 항상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예전보다 볼거리도 많아지고 코너도 다양해져 읽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김천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김천에 가면 볼 것도 맛집도 없다고 얘기하던데 김천의 가볼 만한 곳, 맛집이나 커피가 맛있는 예쁜 카페 또는 맛있는 빵집이나 디저트 가게 소개가 있으면 가끔 김천에 놀러 갔을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외독자, 대전시 중구 충무로 김윤영)

- 우리팀의 즐거움을 선사해주시는 정길화 차장님에 대해 더욱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가족탐방>이 읽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가족탐방도 좋지만 이미 퇴직한 선배님들의 현재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십시오. (기술전략실 기술기획팀 최창섭 사원)

- 사보 속 사진 주인공 ‘차성규 부장님’은 플랜트본부 신입사원 입사했던 시절에 옆 사무실로 질문하러 가면 너무 어려웠었는데 언제든지 환하게 맞이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타 분야에 가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전기계측기술실 김소희 대리)

- 사보가 발행되면 발행소식을 포털에 팝업으로 그룹웨어에 뜨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시대~!(기술사 합격 수기), 공부하며 일하자!(스터디 그룹 모집), 심심한 신입사원 20대를 노려라~!(각종 취미 활동), 30~40대를 노려라~!(김천시 육아정보), 50대를 노려라~! 인생 2막 정착 성공기~!(퇴직 선배들), 가슴을 울리는 함께 하는 콘텐츠(행복 적립금 : 맹인아빠, 세형제 홀아빠 등), 익명게시판 : 회사에 바란다, 동료에 바란다, 문화가 살아있는 콘텐츠. 독자의견 상품지급 확대 등도 취재하여 주세요. (토목건축기술실 박호석 과장)

- 이달의 한컷과 세계도시탐방 ‘페루의 리마, 마추픽추’를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여행의 즐거움을 오랫동안 느끼지 못해 답답했는데 저 먼 지구반대편 페루의 여행지들을 접하면서 잠시나마 여행의 힐링타임을 느낄수 있어 좋았습니다. (토목환경기술실 김대우 과장)

- ‘이달의 한컷 :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은 같은 O&M사업그룹에 계시는 전기분야 차성규 부장님인데 가동원전(O&M사업그룹) 직원들은 마감에 항상 쫓겨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에도 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서원으로서 아직 업무적으로 접하진 못했지만 같은 그룹 직원으로 자부심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는 순간 입니다. (원자력 O&M사업그룹 김성민 대리)

- 사보의 품격을 높이는 명사 칼럼, 임직원/부서/임직원 참여마당, 협력사 소개, 코로나 광고가 무산된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세계도시탐방은 직접 다녀온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사례중심의 법률상식, 신입인턴 특집, 경영회의나 확대간부회의 취재 등 새로운 콘텐츠도 요청합니다. (혁신성장실 정상인 부장)

- 사보를 통해 유용한 정보도 얻고 회사 및 사우들의 소식도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취미’에 욕일기가 그려져 있는 아사히 도자기 잔 사진은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보에 욕일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신경쓰고 게시겠지만, 한번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쓴소리였습니다. (계측제어기술실 최재희 대리 / 사업관리기술실 박종효 부장 / 계측제어설계그룹 정석환 부장)